



1. 성령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32-35)

- 초대교회는 부활의 권능이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도 충만함
-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눔의 공동체를 이룸
-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삶의 관점이 바뀌어 은혜의 나눔을 자발적으로 실천함
-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주님의 사명(눅4:18)을 교회가 계속 이어감
- 사회적 복지제도의 도움 없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함
- 부자들의 자발적 헌신이 있었지만, 가난한 성도들도 힘에 지나도록 헌심함(고후8:1-3)
- 신15:5에 너희 중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고하신 말씀이 새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성취됨

나눔 부활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니까?

2. 물질적 소유보다 은혜의 나눔이 더 큰 기쁨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쁨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더 풍성할 수 있을까요?

-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신 것(행20:35)을 기억해야 함
- 은혜의 나눔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실천임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눅6:38)” 주님께서 약속하심. 주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님께 받게 됨. 주는 것은 일방적인 베풀이 아니라 상호적 나눔임.
-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은혜의 나눔이 자연스런 일상이 되게 해서, 자녀 세대들이 소유의 기쁨보다 나눔의 행복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눔 이번 한 주간 나눔의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3.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적인 미혹이 있었습니까? (5:1-2 참고, 창 3장)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셨습니까? (4:36-37)

-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 그 값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바침
- 땅 판 값의 일부를 드리더라도 그 자체는 선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땅값 전부인 듯 속여서 교회의 존경을 얻으려 함
- 사탄의 계략으로 한 일을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
-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이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동일한 죄의 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죄의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될 위험.
- 만약 이 일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뻔함. 베드로는 성령으로 이것을 간파함.
-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새창조의 공동체인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보존해 주신 것.

나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엄격히 다루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4.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동시에 진리도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지 나눠 보세요.

-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인 동시에 진리의 공동체임. 거짓을 은혜로 그냥 덮어서는 안 됨.
-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엡4:15)이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길임
-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함
- 거짓을 빛 가운데 드러내 꾸짖어야 교회가 세상의 빛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엡5:13)
-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루실 때 죄는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밝히 드러내시고 (무안할 정도로) 계속 기억하게 하시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용서와 무한한 은혜를 베푸심
- 교회와 가정에서도 죄를 그냥 덮어주기보다 진실을 밝히고 책망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야
-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회복을 향한 과정임을 믿어야 함

나눔 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거나, 혹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또는 직면할 용기가 없어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습니까?